



어느 교무실

| 김들

주요 등장 인물 소개

권배<권교장(여.60세), 배교감(여.50세)>, 이강<행정실무원(여.45세), 행정실장(남.50세)>
김박<도서실무원(여.50세), 교무실무사(여.45세)>, 간호사<대학병원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시놉시스

어느 사립 초등학교에서 사서교사를 처음으로 채용하면서 복리후생 문제를 정확하게 짚지 않게 된다. 사서교사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해 휴가를 써야 할 일이 생기자 교감선생은 휴가를 보내 주는 대신 추가 근무를 요구하게 된다. 이 사실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 사실을 뒤에 알게 된 교장이 사서교사에게 사과를 한다. 그 이야기를 통해 교감선생의 권위적 갑질 행태에 의해 교장이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알게 된다. 이후, 사서교사의 남편이 심정지 상태로 위기를 맞아 병원으로 가게 되어 교장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하루 결근한다. 교감은 자신에게 휴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분노하여 수술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며 소위 갑질 발언을 한다. 그다음 날, 겨우 지탱한 몸으로 출근한 사서교사에게 월차 없는 사람이 휴가를 썼으므로 추가 근무를 명하고 그 부당함에 교장이 나서서 전체 정리를 하며 사서 교사에게 사과한다. 사서교사는 이런 갑질이 만연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절망한다.

<기> - 사서교사가 휴가를 쓸 일이 생겼는데 월차를 쓸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하여 부당한 추가 근무를 교감선생으로부터 명 받는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이 사과한다.

<승> - 어느 날 사서교사의 남편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고 그다음 날 월차를 신청하게 된다. 월차가 없는 줄 알고 있었던 교감은 휴가 혜택을 받았으니 그다음 날부터 아침 시간 2시간을 추가 근무를 명하고 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월차의 합법성을 어필하지만, 교감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 - 교감이 사서교사를 불러 직접적인 언어의 갑질을 하게 되고 사서교사는 대한민국의 갑질의 행태에 절망한다.

<결> - 교장이 관련 인원을 모아 회의를 하면서 복리후생에 관한 정의를 새로 세우고 잘못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 사과한다. 사서의 남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난다.

제1막 제1장

S#1

초등학교 도서실에 교감 들어온다. 학생 없음을 확인하고 도서실무원에게 다가온다.

배 : 선생님, 이야기 좀 하세요

김 : 예

배 : 이번에 하루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김 : 예

배 : 선생님은 연차도 월차도 없습니다.

김 :

배 : 우리 학교가 사립이라 이렇게 사서교사를 들인 것도 처음인데 휴가까지 쓴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혹시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 : 시상식에 참여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큰 상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받아 와야 하네요.

배 : 학년별로 담임을 보조하는 부담임들도 휴가가 일절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그런 분들과 같은 계약직이니 개인적인 업무는 볼 수 없지요.

김 :

배 : 그래서 여태껏 단 한 명도 휴가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김 : 예.

배 : 그런데, 선생님이 휴가를 신청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의논 끝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 : (방백) 원가 선심을 쓰는듯한 말투네.

배 : 이왕에 말씀을 꺼냈으니 행사는 다녀오시고요.

김 : 예, 감사합니다.

배 : 대신, 그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십시오.

김 : 추가 근무요?

배 : 6시간 근무이시니 하루에 한 시간씩 연장해서 6일간 근무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시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김 : 교장 선생님께서 승인하신 건입니까?

배 : 예.

김 :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배 : 선생님이 11시 출근하시니 9시까지 출근하셔서 담임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3일 하시거나

김 : 그런데 사서교사가 담임들을 왜 도와줘야 할까요? 부담임들도 있는 마당에. 그냥 도서실 근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 : 일찍부터는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 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김 : 그렇지만, 사서가 도서실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배 : (당황하며) 아, 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도서실 추가 근무로요.

김 : 예, 그런데 지금에서 더 일찍 출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이 있어서요.

배 : 그러면 오후에 맞춰야겠네요.

김 : 하루에 1시간씩 6일 연장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배 : 아... 1시간씩이면 본래 퇴근 시간이 5시인데 6시에 퇴근하시겠다는 거죠?

김 : 6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하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배 : 그런데, 6시까지 계시면 제가 퇴근하고 난 후에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김 : 시간 나누는 건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배 : 제가 퇴근하고 선생님 혼자 학교에 계시는 건 좀 짹짹하네요. 네가 5시 30분에 퇴근하니까 매일 30분만 더 있다 가지지요.

김 : (놀라며) 30분요?

배 : 예.

김 :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면 12일이나 걸리는데요

배 : 그렇더라도 휴가 보내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김 : 제가 6시에 퇴근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안시스템 운영에 문제 있습니까?

배 : 아니요. 그건 경비팀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짹짹해서요.

김 : (방백) 뭐가 짹짹하다는 거지?

배 : 선생님 계약직인데 학교 비품 관리에 대한 권한도 없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을 제가...

김 : 그런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배 :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불안해서요. (불쾌한 표정으로) 제가 제시한 조건이 아니면 휴가 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김 : 그것도 교장 선생님과 상의한 내용입니까?

배 : 예.

S#2

학생들 하교한 뒤 조용한 학교, 도서실 문이 열리면서 권교장 들어온다. 손에 딸기 셰이크를 들고 있다. 권교장 들어오자 도서실무원 일어나 인사한다.

권 : (웃으며) 김선생님, 추가 근무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이거 좀 드세요.

김 :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 해야지요.

권 : (도서실 책상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김선생님, 깊이 사과 드립니다.

김 : 무슨 말씀이세요?

권 : 저는 사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추가 근무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에야 알았어요.

김 :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제 추가 근무를 결정하신 거 아니세요?

권 : 교감 선생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일이에요.

김 :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교장 선생님 승인 아래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요.

김 :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교장 선생님 승인 아래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요.

권 :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는 거죠. 교감이 제게 보고를 안 하고 늘 그런 식으로 단독처리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번 일도 그중 하나예요. 사서교사 채용이 처음이다 보니 우리가 월차 관계를 정확하게 몰랐던 게 불찰이었어요.

김 : (조심스럽게) 그렇긴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월차 하루도 쓸 수 없다니 이걸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하루 휴가 잘 다녀오고 매일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니 그것도 괜찮겠다 하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학교에서 잘 알아봐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11개월 계약직이지만 월차 하라 쓸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2주가량 연장 근무한다는 것도 좀 비효율적인 거 같고요.

권 : 그래요, 이걸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참에 행정실장에게 문의해봅시다. 제가 교장실 가서 행정실장과 통화를 해봐서 확실히 알아볼게요. 그동안 이거 좀 들고 계세요(딸기 셰이크를 한 번 더 내민다)

김 : (그제야 셰이크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권 : 그럼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김 : 예.

권교장, 교장실로 돌아간 뒤 잠시 후 권 교장이 들어온다.

권 : (활짝 웃으며) 사서 선생님! 있어요, 있어. 월차가 있었어요!

김 : 예? 정말요?

권 : 행정실장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12개의 월차가 있대요. 연차는 아니고 월차라고 하네요. 그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야 그걸 알다니, 진짜 알았다면 이렇게 추가 근무 안 하고 좋았을 텐데.

김 : 그만큼의 월차가 있다는 것을 안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권 : 별말씀을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챙겨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무심했던 거 같아요. 그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을 고생시키고, 미안합니다. 추가 근무 30분도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김 : 내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권 : 그것도 그만두세요. 더 안 하셔도 돼요.

김 : 그래도 약속했는데 어찌 그러겠어요. 내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권 : 안 그러셔도 돼요. 이제 그만 하세요. 이렇게 반듯하신 분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지키고 계시니 제가 흐뭇합니다.

제1막 제2장

S#1

출근한 권교장, 교무실무사에게 간다.

권 : 박 선생님, 사서 선생님이 오늘 못 나오세요. 남편분이 심정지 되어서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가 계신다고 연락 왔어요. 하루 월차를 쓰신다고 하니까 전산 처리 좀 도와주세요.

배 : (권 교장에게) 아니, 왜 사서 선생님이 교감한테 전화 안 하고 교장한테 했어요?

권 : (의아한 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관리자 한 사람에게 알리면 됩니다.

배 : (화를 내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교감한테 연락했어야지 왜 교장 선생님께 했느냐고요? 그런 보고는 본래

배 : (화를 내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교감한테 연락했어야지 왜 교장 선생님께 했느냐고요? 그런 보고는 본래 교감에게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교장 선생님이 사서 선생님을 싸고도니까 저한테 전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권 :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니...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 나갈 때 관리자 누구라도 연락했으면 됐지, 그럴 때 교감이요 교장이요 따질 정신이 있겠어요?

배 : 어쨌든 그런 보고는 저한테 해야지요. 교감이 학교 모든 일을 알아서 교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교장이 먼저 알아서 교감한테 통보해주시나요? 그 절차가 맞느냐 말입니다.

권 : 이보세요! 배 교감 선생님! 그런 말이라면 내가 해야 할 말이네요. 교감선생이 직원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교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니 내가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교감이 교장한테 해야 할 보고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자신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말로 말이 안 됩니다.

배 : (당황하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교무실무사 보는 앞에서!

권 : 교감 선생님,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교감 선생님이란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교무실무사 앞에서 교장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교감 선생님이란 사실도 꼭 명심하세요. (교장실로 들어간다)

S#2

병원, 심혈관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도서실무사. 초조하게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앞쪽 전광판에는 <김OO 수술 중> 이란 글씨가 씩어져 있다. 그때, 김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김. 큰 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는다.

박 : 선생님, 교무실무사입니다.

김 : 예.

박 : 좀 어떻습니까?

김 : 지금 수술 중입니다.

박 : 어휴,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학생들 방과 후 수업은 다른 날 보강하셔야겠지요? 안내를 드려야 해서 그렇습니다

김 : (힘든 표정으로) 지금 사람이 수술실에 있어요. 그 이야기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박 : 예... 그럼 일단 제가 오늘은 방과 후 수업 못 한다고 안내만 드려놓을까요?

김 : 부탁드립니다. 보강은 정확하게 해주겠습니다.

박 : 예, 그런데 선생님... 저, 교감 선생님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찌지요?

김 : 선생님,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박 :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라는데요.

김 : (인상을 찡그리며) 그럼 바꿔 주세요

박 : 직접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십니다.

김 :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전화를 겁니까! 사람 죽고 사는 일입니까!

박 : 잘 모르겠는데... 꼭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

김 :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전화 끊고 교무실로 전화해 교무실무사가 전화를 받고 교감에게 연결해준다.)

김 :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전화를 겁니까! 사람 죽고 사는 일입니까!

박 : 잘 모르겠는데... 꼭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

김 :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전화 끊고 교무실로 전화해 교무실무사가 전화를 받고 교감에게 연결해준다.)

배 : 아, 사서 선생님.

김 : 예, 교감 선생님.

배 : 아무리 사적인 상황이 시급해도 이럴 때는 교감한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김 : 예.

배 : 본래 학교라는 데가 위계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관리자라고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 :

배 : 이번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잘 해줘서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해주세요

김 :

배 : 사서 선생님?

김 : 예.....

배 : 그리고 내일은 나올 수 있나요?

김 : 예.

배 : 내일 나오시면 추가 근무를 하셔야겠네요. 휴가를 쓸 수 없는 분이 하루를 쓰셨으니 학교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이에요.

김 :

배 : 그럼 내일 학교에서 추가 근무 이야기합시다.

김 : (말없이 전화를 끊고 화난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 그때 수술실에서 보호자 찾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 뛰어간다.)

제2막 제1장

S#1

도서실무사, 조심스럽게 학교 현관문을 밀고 들어온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잠시 비틀거리기도 한다. 도서실에 가방을 넣어두고 교무실로 간다.

박 : 아, 선생님. 수술은 잘 되셨어요?

김 : 예...

배 : (뒤편 책상에 앉아 있다가) 아, 사서 선생님 나오셨어요? 여기 잠깐 와주세요

김 : (불편한 표정으로 그쪽으로 간다)

배 : (종이를 들어 보이며) 선생님, 오늘 4학년 부담임 선생님이 코로나로 결근하셨어요.

김 : 예.

배 : 그래서 대체 인원이 필요한데...

김 : 예.

배 : 선생님이 4학년 교실에 가서 담임 보조 좀 해주세요.

김 : (인상을 찡그리며)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로 그 일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 : (노려보며)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까?

김 : 지금까지 중환자실을 지키다 왔어요. 출근도 어려울 것 같았는데 겨우 나왔습니다. 그 점은 선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아! (뒤로 한 발짝 물러나자 비틀거린다)

배 : (좀 놀라는 듯하다가) 그러면, 오늘은 그냥 쉬시고... 내일부터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추가 근무를 해주세요.

김 :

배 : 본래, 월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를 놓았으니 학교에서는 손해예요. 그 시간만큼 일을 보충하셔야지요.

김 : 그런다고 배우자 심정지 간호하고 온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추가 근무를 요구하시는 건 너무 하지 않으세요?

배 : 그래도 급여를 공짜로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김 : 저, 월차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월차 쓸 수 있는데 왜 제가 쓰지 못합니까?

배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월차를 쓸 수 있단니?

김 : 그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궁금하시면 행정실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났으니 저는 이만 도서실로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서요. (밖으로 나온다)

S#2

도서실에 있던 학생들 점심시간 끝나자 모두 교실로 올라가고 도서실무사, 책 정리를 하고 있다. 이때 권교장 들어온다.

권 : 사서 선생님, 몸은 어떠세요? 이럴 땐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힘들어요. 몸을 잘 챙기셔야 해요.

김 : (인사를 하며) 교장 선생님, 덕분에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권 : 어유, 어찌나.... 너무 놀라서 오늘 출근할 수 없었을 건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김 : 어찌겠습니까. 그나마 월차가 없는 사람이 휴가 썼다고 추가 근무하라고 야단이네요.

권 : (눈이 휘둥그레져서) 누가요?

김 : 교감 선생님이지요.

권 : 내가 월차 처리하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 출근하자마자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래, 월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를 놓았으니 학교에서는 손해예요. 그 시간만큼 일을 보충하셔야지요.'

권 :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께 어떻게! 아유, 정말 큰일 낼 사람이네...

김 : 제게 4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을 보조하라고 합니다. 내일 2시간 일찍 출근해서요.

권 :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생님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다 선생님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그 일도 제게 의논하지 않고 교감 선생님 단독으로 한 일이에요. 다른 선생님들께 부탁해도 될 일을 꼭 선생님께 그러니 본인이 교장인 줄 아나 봐요. 제가 가서 확실히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걸 도무지 학교 위계가 서지 않으니.

김 : 교장 선생님,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한 일 당하시는 거 아닐까요?

권 : 아니예요. 그동안 몇 번이나 참았는데 늘 이런 식으로 교감이 교장에게 보고 없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큰 실수를 하는 거지요. 이대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결정권자는 저이니 제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우선 몸 좀 추스르셔야지요. 내일 추가 근무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일어나 밖으로 나가다 도서실무사를 쳐다보며)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출근하지, 저 같았으면 기절해서 저도 같이 응급실에 실려 갔을 거예요.

제3막 제1장

도서실에 전화 소리 들린다.

김 : (전화기를 들고) 네, 도서실입니다.

배 : (전화 소리) 그래, 내 말을 안 들겠다는 거지요?

김 : (전화 소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 : (전화 소리) 내일부터 추가 근무 못 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김 : (전화 소리) 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린 거라면 구태여 내일 추가 근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배 : (전화 소리) 당장 교무실로 와주세요!

김 : (전화 소리)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

배 : (전화 소리) CCTV로 보니 두 명 정도밖에 없네요.

김 : (전화 소리) 어쨌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배 : (전화 소리) 그 정도면 잠시 비워도 되니 교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딱 끊는다)

김 : (혼잣말로) 교장 선생님 말씀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군. 본인은 교장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은 자신에게 순종하라? 갑질. 이런 게 갑질이군 그래. (한숨 한 번 쉬고 학생들에게) 애들아, 선생님 잠시 교무실에 다녀올게. (학생들 고개 끄덕인다)

김, 교무실로 들어선다.

배 : (사서를 노려보고 있다)

김 : (교감에게 가서)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배 : 사서 선생님 월차 없습니다!

김 : 그래요? 거참 이상하네요.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이 행정실장님 통해 알아보셨는데 저한테 12개의 연차인가 월차인가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배 : 제가 교육청에 전화해 보았더니 사서는 월차가 없다고 하던데요.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확인해봤어요.

김 : 교감 선생님, 지금 제게 월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왜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요? 학교에서 사람을 쓸 때는 미리 그런 문제 알아봐서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을. 미처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서 나중에 정리하면 될 일인데 지금 어지러워서 서 있기도 힘든 사람한테 월차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배 : (소리 지르며)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 말을 안 듣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관리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김 : 저는 학교 최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월차를 썼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문제 됩니까.

배 : 저한테 먼저 했어야지요. 제가 먼저 알고 위로 보고하는 게 순서이지요.

김 : 그렇게 위로 보고를 잘하시는 분이 앞 전에 제가 하루 휴가 썼을 때 하루 30분씩 추가 근무시킨 그 일을 교장 선생님께 상의 안 하셨습니까?

배 : (큰소리로) 선생님! 왜 그때 일을 꺼내는 겁니까!

김 : 뒤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런 지시를 한 것ですよ. 단지 그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까?

배 : 아니요! 사서 선생님은 법적으로 월차를 쓸 수 없는 사람이니 내일 2시간 일찍 와서 4학년 교실에서 시간을 때우셔야 합니다!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김 : 아니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배 : 이보세요! (종이를 들어) 여기다 전화해 보라고요. 여기 전화해서 사서 선생님 월차 없다는 걸 확인했더니깐요.

김 :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고 저도 자칫하면 응급실 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경로로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손으로 이마를 짚는다)

배 : (종이를 눈앞에 대며) 여기다 직접 전화해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김 : 왜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까. 그런 건 학교에서 확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실장님을 통해 월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교장 선생님께 월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으니 행정실장님께도 여쭙보시죠.

배 : 그래요? 그러면 행정실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 버튼을 누른다) 아, 이보세요? 교감인데요. 사서 선생님 월차 쓸 수 있습니까?

이 : (전화 소리) 사서 선생님요? 계약서를 보면 아는데. 아마 없을걸요.

배 : 아, 알았어요! (전화 끊는다) 행정실에서 월차 없다고 합니다! 이제 되셨어요?

김 : 행정실장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배 : 행정실무원입니다.

김 : 행정실장님을 통해 알아봐 주십시오. 앞전에 확인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배 : 선생님이 알아보세요. 왜 제가 선생님 일을 대신해 줘야 합니까? 사서 선생님 태도가 참 당황스럽네요.

배 : 저야말로 교감 선생님이 당황스럽습니다. 월차 관계 알아보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십니까.

김 : 뒷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배 : 존경받는 교감 선생님이셨다면 배울 게 많았을 겁니다.

김 : 함부로 말씀 하지 마세요!

배 : 아무리 위계질서가 있는 곳이라 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서 이런 살벌한 대우를 받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에 관한 일은 을이 다 알아보고 직장에 들어옵니까? 갑이 알아서 체크하고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사람을 부리면서 월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이렇게 개 부리듯 부려 먹는 겁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갑질로 얼룩진 미개국이란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서실로 가겠습니다. 어지러워서 못 서 있겠습니다. (비틀거리며 교무

한국이 이렇게 갑질로 얼룩진 미개국이란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서실로 가겠습니다. 어지러워서 못 서 있겠습니다. (비틀거리며 교무실을 나선다)

제3막 제2장

S#1

교무실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린다. 그때 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

김 : (큰 숨을 쉬고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간호사 :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구요. 보호자분께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김 : 예.

간호사 : 나는 괜찮으니 당신 몸 잘 보살펴요라고 말씀하시네요.

김 : (울컥하여) 아, 예....

간호사 : 보호자분, 저도 이런 일 오래 했는데 이런 환자분은 처음 봅니다. 환자분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데 이 환자분은 깨자마자 보호자분 걱정하시네요.

김 : (눈물을 흘리며) 예... 그런가요...

간호사 : 환자분, 힘내세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운이 좋고 지병도 없어서 탈 없이 일어나실 겁니다.

김 :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호사 : 얼마 전에도 심정지로 응급실로 들어온 20대 여성분이 있으셨는데 병원 도착한 지 3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도 몇 분 더 오셨지만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심정지 후 소생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환자분은 이미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처치가 잘 되었고 구급대원들이 조치를 잘해주어 병원 들어와서 곧바로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큰 검사*도 무사히 통과했구요.

김 : 예, 그런 거 같아요. 모두 의료진 덕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면회가 안 될까요?

간호사 : 아마 며칠 더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조금 더 안정을 취하고 나서 관상동맥조형술 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술을 할 수도 있어서요.

김 :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무섭네요.

간호사 : 정확한 건 담당 교수님 소견이 나와야 전체적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김 : 예..

간호사 : 만약 부정맥이 확실하다면 그에 관한 시술을 하고 아니라면 다른 시술을 해서 잘 회복하게 될 겁니다.

김 : 예.

간호사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병원 의료진들 시술도 잘하고 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보호자분과 카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네요.

김 : (반가워하며)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좀 안심이겠네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간호사 : 별말씀을요, 보호자분과 환자분이 치료에 협조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지요.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2

도서실로 전화 걸러 온다.

김 : 예, 도서실입니다. (전화 소리 듣고)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김, 일어나 도서실 책상을 정리해두고 교장실로 간다. 거기에 행정실무원, 행정실장,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무실무사 모두 앉아 있다.

권 :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사서 선생님. 앉으세요. (주변을 둘러보며)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서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월차 문제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 월차 문제에 관한 진위 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김을 바라보며) 사서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힘드실 텐데 이런 자리에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실무원을 바라보며) 이 선생님, 사서 선생님 월차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 (당황하여) 아니, 그냥... 없을 거 같다고 말씀 드린 건데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권 : (교감 선생님을 보더니) 그런데 교감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월차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던데요.

이 : (두 손을 내저으며) 아닙니다. '아마 없을걸요...'라고 말했다 뿐인데요.

권 : 그럼 교감 선생님이 말을 잘못 전한 거네요

배 : (큰소리로) 그건 아니죠, 교장 선생님!

권 : 조용히 합시다. 회의 진행에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그다음, 교무실무사.

박 : (몸을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예

권 : 내가 그날 아침에 박 선생에게 사서 선생님 월차를 쓰기로 했으니 전산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산에 안 올렸더군요. 이유가 뭐니까?

박 : 아니, 그게..., 월차가 없는 줄 알고.

권 :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승인 해준 것이니 전산을 열어 연가로 기안을 올리면 되는 거죠. 교무실무사가 교장의 지시를 어긴 것 맞지요?

박 :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권 : 그게 아니면 뭐니까?

박 : 교감 선생님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요.....

배 : (큰소리로 교무실무사를 바라보며)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박 : (깜짝 놀라며) 아니, 교감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서가 자기 말 들을 때까지 전산 처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권 : (배를 한 번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으며 박을 쳐다보더니) 박 선생님, 이 학교 최고 결정권자는 교장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박 : (얼굴이 벌게져서) 예....

권 : 그런데 어째서 교감 말을 듣고 교장 말을 거역했을까요? 그 부분, 차후에 징계위원회 회부되면 이야기 합시다.

박 : 아, 아니. 교장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두 손을 싹싹 빈다)

권 : 그 사람 다음, 행정실장님

강 : 예

권 : 사서 선생님 월차 관계 정확하게 알아보셨지요? 알려주세요.

강 : 예, 일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문의하셨을 때 12개의 월차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니 사서 선생님의 경우 12개월 계약직이 아니라 11개월 계약직이라서 30일 더하기 10일에 한 번씩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40일에 한 번의 월차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연차는 해당이 안 되고요.

권 : 그러면 사서 선생님이 3월에 출근하기 시작해서 현재 8월 말일이니 최소 5개의 월차는 쓸 수 있는 거네요?

강 : 예.

권 : 일전에 하루 휴가를 쓴 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30분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강 : 그렇지요.

권 : 이번에 큰일 당하고 저한테 전화로 월차를 쓰겠다고 했으니 이번 휴가도 합법적이겠지요?

강 : 예, 맞습니다.

권 : 현재로서는 4개의 월차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강 : 예.

권 : (교감에게)자, 교감 선생님이 전화하셨다는 교육청 그 부서에는 사서 선생님 월차가 없다고 했다던데 법적 근거를 대 보시지요.

배 : (당황하며) 아니 그게....

권 : 사서 선생님을 교무실에 불러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라 하셨다면서요?

배 :

권 : 그 일은 학교가 할 일이지 사서 선생님이 직접 할 일입니까?

배 :

권 : 그건 그렇다 치고 왜 그곳에서는 월차가 없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교무실무사에게 그곳에 전화해서 다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 말씀해주세요

박 : 그곳에서는 우리 학교의 상황을 잘 몰라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랍니다.

권 : 교감 선생님이 통화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박 : 예..... (교감의 눈치를 본다)

권 : 사서 선생님

김 : 예.

권 : 저희가 이번엔 선생님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복리후생에 관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선생님이 고생하신 겁니다. 학교의 책임임으로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 (고개를 숙이며)

권 : 또, 부담임 선생님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대체 인력을 써야 하는데 사서선생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의도도 옳은 처사

아니었습니다. 부디 널리 양해해주시요. (깊이 고개 숙인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사서 선생님께 사과함이 옳을 줄 압니다.

권 :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왜요!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제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왜요! (얼굴이 벌게져서는 문을 열고 나가버린다)

조용한 교장실, 씩씩한 표정의 교장 선생님.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나가라는 손짓을 한다. 사람들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간다. 모두 나가고 마지막에 사서 선생이 나가려고 하자 교장 선생, 그에게 다가간다.

권 : (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합니다... 사서선생님..

김 : 아닙니다. 이만큼만 해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세상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질이 세상에 널리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 민주화의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권 : 이해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 역량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김 : (웃으면서)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그동안 교장 선생님도 나름으로 고충을 많이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정의의 사도처럼 멋있었습니다!

권 : 사서 선생님 웃는 모습 보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김 : 참,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마취에서 잘 깨어나 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권 : 잘 되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김의 손을 꼭 잡아준다) 안전.

<끝>

*관상동맥조형술: [coronary angiography] 경피적 경로를 통해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모양과 협착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진단기법